

성경의 경제와 구원에 관한 小論

황희영 (영산대학교 국제무역학과 교수)

I. 경제와 구원의 의미와 연구 방법론

지금까지의 기독교 역사에서 구원은 주로 영적인 의미의 구원을 의미했다. 창조 이래 아담의 죄로 인한 타락으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온전한 관계는 단절되었으며 그것은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었다. 그로부터 구원의 문제가 인류에게 제기되었다. 오랜 시간이 지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이루시므로써 구원의 전형을 보여주셨으나 계속된 이스라엘의 범죄로 백성들은 죄 가운데 있었다. 온전한 구원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흘러진 피로 이루어졌다. 그의 피 값으로 우리의 죄가 구속된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영적인 구원이며 많은 사람이 알고 있다.

그에 반해 경제적 관점의 구원에 관해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논의하는 자료는 많지 않다. 무엇보다 경제와 구원 사이의 관계를 설명할 명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직 없었다. 본 논문은 이에 대해 성경 전체를 통해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경제 관점의 구원이 매우 중요한 성경의 이슈이며 또한 유형화를 시도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정된 관계가 존재한다고 말하고자 한다. 따라서 경제와 구원의 관계의 구체적 특징을 밝히며 나아가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메시지를 보여주는 큰 하나의 패턴이 존재함을 보이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어떤 문제의식에 대한 설명에 그치지 않는다. 빈곤과 구제에 관한 문제나 소유와 윤리에 관한 질문들은 현대 사회에 크리스천들 사이에 여러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는 이슈들이다. 성경의 경제와 구원에 관한 본 논문의 중요 내용과 시사점들이 이런 질문에 대해 나름대로의 조명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1. 경제와 구원의 의미 및 영적 구원과의 일관성

영적으로 구원을 받지 못했을 때 우리는 죄의 노예 상태에 있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구원된다는 것은 노예의 신분과 상황으로부터 벗어남을 의미한다. 아담의 후손들이 이집트에서 400년을 자유 없이 지내다가 하나님을 돌아보셔서 구원해내셨다. 왜냐하면 그들이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이다. 모세가 그들을 인도하여 이집트를 벗어났을 때로부터 자유인이 되었다.

성경에 나타난 경제와 구원에 관한 논의는 성경의 매우 많은 곳에서 경제적 고통을 부르짖는 백성들이 있어서 그들이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기를 기다리는 사실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 고된 일을 하고도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지위에 있거나(출),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거나(출), 다른 부족이나 나라로부터의 끊임없는 침략 때문에 먹을 것이 없거나(삿), 전쟁으로 인해 극심한 기근에 있거나 혹은 포로로 잡혀가서 자유가 없을 때(선지서) 등 성경의 전반에 걸쳐 관찰되는 경제적 고통으로 백성들이 부르짖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경제 문제란 현대적 개념으로 볼 때 빈곤, 빈부격차, 혹은 성장 전략의 실패 등을 말하거나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어야만 하는 것을 말할까? 그것은 아닐 것이다. 성경은 백성들이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모습을 자주 그리고 있다. 우리는 먼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경제적 고통이 실제로 어떻게 기술되어 있는

1) 본 논문에서 성경의 본문을 인용하기 위해 한국어로는 아가페사의 쉬운 성경을, 영문판으로는 New Living Translation 을 주로 참고했다.

지 살펴볼 것이며 그로부터 구원을 바란다는 것이 무엇인지 논의할 것이다.

그런데 경제적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의미로부터 나아가 성경은 경제와 구원의 문제가 영적 구원과 전혀 무관한 별개의 개념이 아니며 오히려 상당한 일관성을 보이고 있다. 우리가 보기에 매우 뚜렷하게 보이는 네 번의 구원의 역사에서 하나님은 영적 구원과 경제적 구원을 동일한 맥락에 두고 다루고 계신다. 이 둘 사이의 일관성은 이들이 완전히 동일한 문제는 아니라 하더라도 상당한 동질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유사한 맥락에서 다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2. 경제와 구원의 유형화 및 방법론적 특징

우리는 위와 같은 맥락으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가 성경에 나타나는 경제와 구원을 큰 하나의 패턴을 가진 형태로 묘사함으로써 유형화(typology)를 시도한다. 연구 방법론적인 의미에서 유형화란 몇 가지 주요한 특징을 반영한다. 먼저 지속적이며 반복된 사건들의 집합이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매우 빈번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록 매우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우리의 계산에 의하면 성경 전체에 걸쳐 최소한 전적으로 사용된 20개 이상의 장과 1500 절 이상의 성경 구절이 경제와 구원의 관계를 유의미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본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역사적 맥락에서 반복되어 나타나는 지속성을 말하기도 한다.

반복되는 패턴(pattern)이란 현상적 반복성이기도 하지만 그와 달리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반복되는 메시지, 즉 일관된 구원의 뜻과 같은 '의지(will)'를 담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혹은 그에 따른 인간의 행동 패턴 내지는 제도화와 같은 '반응(response)'의 반복적 표현일 수도 있다. 즉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동인에 의해 그 구성원인 사람들과 그들의 행동 양식 및 제도는 물론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 등 모두가 반복된 패턴 속에 담길 수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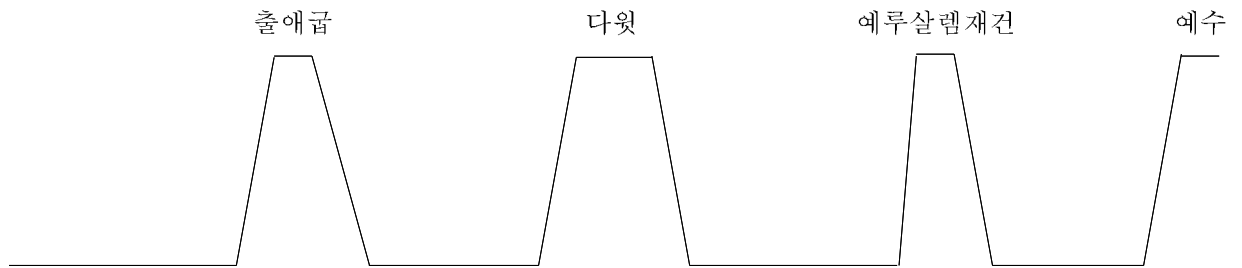
일단 우리가 하나의 유형을 가지게 되면 그것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그 다음의 작업이다. 패턴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설명, 그 요소들 간의 상호 관련성, 그리고 성경이라는 전체 텍스트 속에서 가지는 특성들을 가려낸다. 그런 다음 그 요소들과 그들의 특징들이 역사적 시간 속에서 얼마나 동질적인지를 비교할 수 있다. 이것으로부터 (역사적) 시기 구분이 행하여지기도 한다. 우리는 인문학 및 사회과학에서 이와 유사한 방법론을 아날학파나 조절이론²⁾ 등에서 발견한다. 우리는 이러한 연구 방법론이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과 그 의미를 이해하는 데에 매우 유용하다고 생각하며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것이다.

II. 성경에 나타난 경제와 구원의 사건들

1. 시기 구분

경제와 구원의 관점으로 성경 전체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역사를 시기적으로 구분하면 크게 네 번의 흐름이 보인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집트에서 나와 가나안에 정착한 시기가 처음이고 그 다음은 사사시대를 지나 왕이 세워지며 다윗이 국가를 건설하고 이어 그 아들 솔로몬이 통치한 시기이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앗시리아와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감으로써 멸망하였다가 일부가 이스라엘로 돌아와 예루살렘을 재건한 시기이며, 마지막은 여러 다른 왕조와 로마의 통치하에 있던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나시고 제자들과 함께 공생애를 보낸 시기이다. 이것을 아래에서 그림으로 나타내 보았다.³⁾

2) 아날학파에 대해서는 참고문헌의 Braudel (1967)을, 그리고 조절이론에 대해서는 Boyer (1986)을 참고하십시오.



<그림 1>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경제와 구원의 관계에 따른 시기 구분

2. 시기별 특징

(1)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이 무려 사백년 동안 한 나라에 속하여 노예로 지낸 것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으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은 그에게 그의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약속과 함께 그들이 오랜 세월을 노예로 지낼 것과 큰 부를 가지고 그곳을 나오게 될 것을 일러주신다(창 14:14).

노예 생활은 그 자체가 큰 어려움이어서 성경은 그들이 너무나 힘겹게 일하였으므로 신음했다고 한다(출 2:23). 이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세라는 한 지도자를 부르시고 약속의 말씀을 하신다. 그 약속은 그들이 이집트 사람들로 부터 구원을 받을 것이며, 젖과 꿀이 흐르는 넓고 비옥한 땅으로 갈 것이라는 것과 이집트에서 나올 때 빈 몸으로 나오지 않고 금과 은이나 옷 등을 받아서 나오리라는 것이다(출 3:21-22).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이집트를 떠나 광야로 들어와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한다. 그 때 하나님은 그들이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준비하도록 하신다. 이것은 성막을 짓는 것과 제사장의 역할 및 죄사함을 얻기 위한 등의 모든 절차를 가르치고 익히도록 한 것이다. 바로 이 예배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다른 율법들과 함께 그 사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 위에 서도록 기초를 놓았다.

말씀의 법의 기초는 백성들이 그 기초 위에 삶을 살아갈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의 구체적 일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느냐의 여부가 과제였다. 그러므로 구원의 약속과 함께 이집트를 떠났으나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의 시험이 있었다. 대표적인 첫 번째 관건은 안식일에 관한 것이었으며 두 번째 믿음의 시험의 정점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때였다. 두 사람을 제외한 열명은 새로운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큰 구원에 대한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다.

출애굽기는 이러한 하나님의 주요 관심사, 즉 말씀에 대한 순종과 새로운 삶의 양식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한 기초 놓기를 보여주는 한편 사람들의 끊임없는 관심사가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욕구의 충족에 관한 것임을 또한 기록하고 있다. 시편 기자는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한다(시 78:18) 그러나 이러한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

3) 그림에서 수평축은 역사상의 시간을 나타낸다. 수직축은 경제적인 안정 상태를 상징적으로 나타내지만 높이가 어떤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수준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오르고 내릴 때의 경사 역시 단지 상승과 하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각각의 국면에 따른 실제적 시간 경과와는 구체적인 관련성이 없다. 경제적 안정기(top)와 경제적 고난(bottom)의 시기에는 각각의 시대를 표현할 수 있는 이름이나 특징을 적어보았다.

에 대해서조차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심으로써 궁극적인 공급자이신 것을 나타내셨다. 마라의 쓴 물을 달게 하신 것은 경제적 장애물을 제거하시는 분임을 드러내신 사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의 반응은 충분치 않았다. 백성들은 여전히 맛사(트리바)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다.

비옥한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가 장성하였을 때에서야 비로소 이루어졌다. 모세의 지도력을 계승한 여호수아는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갔으며 그로부터 스스로 그곳에서 나는 식물들을 먹을 수 있었으며 모든 사람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 노예의 신분으로서의 절대 도달할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지위를 가지게 되었으며 그것은 동시에 완전한 경제적 구원이었다.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새로이 가지게 된 삶의 양식인 예배에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예배가 경제적 인 대가 지불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동물의 희생(sacrifice)을 필요로 했다. 이것은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는 말씀과 같은 맥락에 있다. 그런데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모든 희생은 드리는 자의 경제적 가치의 손실이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경제적 가치의 희생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을 반영한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출애굽을 통한 구원의 마지막 과정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하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다. 영적 구원이 일방적이거나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 선택적이라면 그것은 경제와 구원의 관점에서도 동일하다.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믿고 지켜 행함으로써 번영의 길을 갈 것을, 순종하지 않고 거역함으로써 저주의 길을 가지 말 것을 촉구한다.

모세의 출애굽을 통한 경제와 구원의 특징은 이 과정이 성경에 나타난 경제와 구원의 전형(prototype)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노예로부터 완전한 자유인으로서의 신분의 전환과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능력의 획득,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먼저 선포되고 그것이 실현된 것, 그 과정이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의 형성과 병행하는 점, 하나님이 전능한 경제적 공급자이심을 보이신 것, 사람들의 끊임없는 불신앙과 시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순종으로 축복의 길에 들어서느냐 아니면 거역함으로써 저주의 길을 갈 것인가의 선택의 문제 등이 대표적인 구성요소들이며 이들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에 풍부한 사례들과 함께 처음 소개되어 있고, 이들 요소가 앞으로 볼 다른 시기들에서도 반복되기 때문이다.

(2)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

사사기에 등장하는 다수의 사사들은 이스라엘에 따로 중앙집권적인 왕이 존재하지 않았던 때에 위기를 해결한 인물들이다. 여기서 위기란 백성들이 주로 이웃나라들로부터 침략을 당하여 약탈을 당하거나, 괴롭힘을 당하거나 혹은 침략자들이 농작물을 망치고 먹을 것을 남겨놓지 않거나 땅을 못 쓰게 만든 행위들로 인해 생긴 경제적 피해들이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사사들이 등장했다. 이러한 경제적 고통의 원인이 먼저 분명하게 드러나 보인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대해 순종하지 않는 것(삿 2:1-1), 우상숭배와 그로 인한 하나님의 분노(삿 2:20, 22; 삿 3:4), 그리고 하나님이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대해 구원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 것 등 때문이다(삿 8:35).

이 시기의 경제적 고통의 뿌리는 여호수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순종의 선택(수 24:24)이 지켜지지 못하고 구원의 역사를 망각한 불신앙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던 민족들을 이용하여 그들을 시험하시는데 바로 이 시험이 경제적 고통과 동일한 맥락에 있다(삿 2:1-3). 이에 이용된 민족들은 미디안, 블레셋, 모압 등인데 이들은 각각 최소 7년에서 길게는 40년까지 이스라엘을 지배하며 괴롭혔다. 사사시대는 이처럼 평화시기와 외적의 침입 및 피지배라는 패턴의 반복으로 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 백성들에게 가르쳐져 행하여지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사사기는 이와 같은 혼돈과 우상숭배의 악을 “사람들마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고 표현한다(삿 21:25).

경제적 구원을 부르짖던 이스라엘 백성은 악한 행실에서 돌이키기 보다는 사무엘에게 그들을 위한 왕을 요구하였다. 그것은 사사의 체제보다는 이웃나라와 같이 왕을 중심으로 한 국가가 더 강한 힘을 가질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즉 하나님이라는 전능한 왕을 신뢰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 왕’을 의지하기 위해 기대한 것이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이 왕으로 세워짐으로써 경제적 구원에 대한 응답이 실현된다. 그는 먼저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복속시킴으로써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했고 아울러 이전 시대에 상상승배 함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던 죄를 벗어 예배의 영성을 확립하는 기틀을 구축했다. 이스라엘의 경제 규모는 활발한 상업과 외국으로부터의 조공 등으로 매우 커졌으며, 그의 아들 솔로몬의 시대에는 그 어느 때보다 가장 경제 규모가 커져 주변 일대에서 제일 풍요로운 곳이 되었다. 그리고 국가적인 경제 시스템의 틀도 잡혔다(삼상 8:5-20).

비록 경제와 구원에 관한 역사적 반복성은 시대를 뛰어넘는 공통의 요소들을 다루지만 특별히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시기에 해당되는 성경 말씀들은 독특한 자신만의 특징을 가진 점이 있다. 그것은 시편과 잠언 및 전도서에서 한 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의 **부(wealth 또는 rich)**가 어떻게 다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매우 뚜렷한 공통점이 발견되는 것이다. 역사 속에서 나타난 경제적 흐름을 시계열적인 묘사라고 부를 수 있다면 이 두 왕들의 글은 시간에 관계없이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과의 일대일의 관계에서 부딪히는 보편적인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 부(富)에 대한 태도라고 부를 수 있다.

다윗은 이 문제의식을 악인 vs. 의인의 구도로 매우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이며 그 관계는 **부**에 대한 태도를 포함한다. 먼저 그들은 주를 높이고 주님의 사람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다(시 33편), 적은 재물을 가지고도 의롭게 살며, 정직한 사람이고, 베풀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다(시 37편). 또한 주를 찾고 주의 전에 머무는 자들이며(시 65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자들이다(시 81편). 반면 악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거나 단절된 자들이다. 그들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도 악하게 살고, 꾸어기도 갚지 않으며(시 37편) 하나님 대신 돈을 믿고 재물을 자랑한다(시 40편).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지 않으며(시 52편) 백성을 착취하는 자들이다(시 53편). 악인에 대해서 한 가지 매우 분명한 공통적인 결론은 그들이 일시적으로 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심판에 이르러 멸망하리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시편 전체에 흐르는 또 하나의 일관된 공통점은 다윗만이 아니라 고라 자손과 아삽의 시 등에서도 같은 문제의식, 즉 악인과 의인의 관점에서 부에 대한 태도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구분은 솔로몬의 잠언과 전도서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모든 개인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말씀으로, 즉 일종의 개인 윤리 차원의 서술로 바뀌는데 시편에서 의인으로 표현되던 내용은 주를 경외하는 자, 베푸는 자, 정직, 신뢰, 정의를 구하는 자 등 개인화된 용어로 표현된다. 반면 악인은 주를 경외하지 않는 자, 옳지 않은 이득을 취하는 자, 속이고 도둑질하거나 게으른 자, 인색하고 재물을 의지하는 탐욕스러운 자 등으로 묘사된다. 그러나 솔로몬이 악인과 의인의 구분을 하지 않는 것은 전혀 아니다. 잠언과 전도서에서도 전반적인 메시지는 악인은 어리석은 재물과 자신의 피를 좇지만 의로운 사람은 금과 은을 찾는 것보다 주를 경외하는 것을 선택한다는 내용에 있다.

(3) 포로로부터의 귀환과 예루살렘 재건

성경에 나타난 경제와 구원의 세 번째 시기는 포로로 바빌론에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과 예루살렘을 재건한 때이다. 솔로몬 사후 BC 10세기 전반에 이스라엘은 분열되었고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왕 때에 백성들이 앗시리아로 포로로 잡혀갔던 것이 BC 8세기 전반이다. 남유다 역시 느부갓네살왕에 의해 점령되어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것은 BC 6세기 후반이었다. 따라서 이들 기간에 바빌론에 유수되었던 70년을 더하면 경제적 고난의 전체 기간은 거의 400년 정도에 달한다.

이 시기에 관해 한 부분은 열왕기와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주로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를 중심으로 어떻게 그

들이 이스라엘의 왕들의 우상숭배에 대항하여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지 보여준다. 또 다른 기록은 이시야로부터 말라기까지 선지서들에 해당된다. 이 시기의 가장 큰 특징은 극심한 기근이었다. 전쟁으로 인해 기근이 있었으며 굶어죽는 사람들이 거리마다 덮여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부모가 자녀를 잡아먹는 일까지 일어났다(애 2:20) 땅은 황폐하고 도시는 폐허가 되었으며, 생산물은 극히 빈약했다. 이시야는 심지어 땅이 아파서 죽어간다고도 한다(사 33:9).

그 원인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선지서가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몇 가지가 있다. 우상숭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외국을 의지한 것, 지도자들의 탐욕과 불의함, 마음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 율법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음 등과 같은 죄이다. 성경의 해당 구절에서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 및 그 지도자들의 탐욕과 불의한 행위의 종류와 정도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고 악하다. 이시야와 에스겔은 그것을 마치 하나의 긴 목록처럼 적고 있다(사 50장; 겔 18:7-8; 겔 22:6-13; 겔 22:25-29). 하나님은 이 죄악들에 대해 심판하실 것을 분명히 하고 계신다.

그럼에도 모든 선지서는 이러한 경제적 고통과 그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대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 핵심은 전쟁이 멈추어지는 것이나 정치적 안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극심한 기근과 황폐함으로부터의 구원이다. 하나님은 요엘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친 군대를 풀무치와 메뚜기, 누리와 황충에 비유하시는데, 그 군대가 먹어치운 것을 갚아주시겠다고 한다(욘 2:25).

이 시기에 보이는 선지서들에 담긴 회복의 약속에는 그 이전의 경우와 달리 매우 독특한 새로운 내용이 담겨 있다. 그것은 새 일에 대한 예고(사 43:18-19)와 함께 구원자가 오실 것(사 53), 이세의 뿌리에서 나올 그분은 여호와와 영이 충만한 분이며(사 11:1-2)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한 아버지, 그리고 평화의 왕으로 불릴 것(사 9:6-7)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또한 그가 이스라엘을 인도할 목자가 되실 것이라고 한다(겔 34:24-29). 이러한 회복의 내용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알리지만 먼저 일어난 구체적인 회복은 잠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도시를 재건한 것이다. 이를 위해 성전이 건축되었고, 성벽을 수축되었다. 그와 함께 영적인 회복이 일어났다.

예루살렘 재건을 통한 경제와 구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회복(구원)을 위해 사용된 재정이 고레스, 다리오, 그리고 아닥사스다라는 이방의 왕들에 의해 움직여졌다는 점이다. 에스라는 하나님이 고레스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로 하여금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도록 하셨음을 기록하고 있다(스 1장). 그것은 먼저 느부갓네살왕이 약탈한 모든 성전 기물을 돌려받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금과 은 그리고 물건과 기축까지 선물로 받은 것이다. 이어서 다리오왕과 아닥사스다왕은 성전 건축을 위해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할 것을 약속하였는데 에스라는 그것을 '왕의 창고가 열린 사건'으로 쓰고 있다(스 6:4, 8; 스 7:20). 아닥사스다왕은 또한 느헤미야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벽 수축에 필요한 목재를 쓰도록 허락했다.⁴⁾

구원의 역사는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살게 된 백성들이 모여 제단을 쌓는 일부터 시작되었다. 그 뒤 돌을 다듬고 나무를 준비하여 성전 공사가 진행되었다. 성전의 기초를 놓은 후 백성들은 큰 기쁨의 소리를 질렀다(스 3:12). 비록 방해하는 사람들이 반역적 행위로 참소했지만 이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하여 고레스로부터 시작된 것이 인정되었다. 드디어 성전이 완성되었고 사람들은 기뻐하며 그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렸다. 예루살렘 성벽의 수축도 무려 52일 만에 완성되었다. 이러한 재건을 위해 건축과 외적 침입에 대한 방어를 밤낮으로 해야만 했다.

회복의 마지막 단계로서 에스라와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과 이스라엘의 죄를 회개한다. 특히 이방 여자와 결혼한 것의 죄를 회개하며 공동체적인 문제해결을 시도한다(스 10장). 느헤미야서에는 그 외에도 백성에 대한 귀족과 관리자들과 착취에 대한 책망과 회개(느 5장), 안식일에 상거래를 한 것의 죄를 회개가 언급되어 있다. 이 회개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을 맺음으로써 배들을 짓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순종하기를 선택한다(스 10:3)

4) 이러한 과정은 경제적 회복이 순전히 내부의 축적된 자산으로만 이루어져야만 한다거나 절대로 외세의 도움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사고를 벗어나게 한다.

느 10장).

(4) 예수님의 공생애와 초대교회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을 되찾고 새로운 회복을 맞았지만 오래지 않아 또 다른 이방 세력의 주도 하에 들어간다. 그들은 BC 4세기 초반부터 프톨레미 왕조의 지배에 있다가 BC 2세기 말 시리아의 지배 하로 옮겨진 후 BC 2세기 초부터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된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부터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까지의 기간에 해당되는 이 시기는 약 400년 정도이다. 이 기간 중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보통 암흑기라고 부른다. 따라서 이 시기를 서술한 성경 기록이 없으므로 직접적으로 서술한 표현을 찾기는 어렵다. 복음서에는 이 시기의 상황을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 지배자의 착취와 수탈과 함께 지도자들의 학대가 과거의 역사와 마찬가지로 되풀이되었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눅 3:8-14).⁵⁾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는 세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 선포로 시작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것으로 땅 위에 임하게 되었다. 백성들과 함께 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된 것이다. 그 구원은 예수님의 하신 일, 즉 복음을 전하는 것, 더러운 귀신을 쫓는 것, 질병을 고치는 것, 제자들을 부르고 가르치신 것 등으로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 외에도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심으로써 기도하는 집으로 다시 회복하였고(요 2:13-16) 참된 예배를 선포(요 4:21-24)하셨다. 경제와 구원의 가장 구체적 사건은 오병이어의 기적이다(요 6:5-14). 이 모든 일들은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전형적인 모습을 재현하고 있다. 경제에 관해서는 백성들이 생각하던 단지 먹고 마시는 문제의 구원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또 다시 보이신 것이다.

예수님이 보이신 경제와 구원의 완성은 모세가 보인 전형성을 이루는 것 외에 더 많은 요소들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그 의미도 확장된다.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은 단지 3년 정도의 시간이므로 이 사이에 토지의 분배, 주변 국가의 정복이나 혹은 예루살렘 성전 재건 같은 일은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나 이 기간에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었던 것은 “율법의 완성”이다. “나는 율법을 깨뜨리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는 예수님의 말씀(마 5:17)은 이전까지 있었던 모든 경제와 구원과의 관계를 통합하고 있다.

먼저 다윗의 의인은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마 6:19-21), 입고 마실 것을 염려하지 않는 것(마 6:25-33)과 같은 맥락에 있다. 에스라 시대의 성전 재건축은 예수님 자신이 친히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실 것과 돌로 된 성전을 허물면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요 2:19)는 말씀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참된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 때가 온다고 선포한다(요 4:23). 이것은 그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제적 가치를 대가로 지불하는 제물의 희생을 드리고도 매우 오랜 세월 경제적 억압을 받아온 율법과 삶 사이의 모순을 단번에 해결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사야가 “나(여호와)는 너희가 바친 제물을 바라지 않는다. 번제물과 살진 짐승의 기름이 지겹고 짐승의 피도 반갑지 않다(사:11)”고 하며 또한 하나님이 바라는 금식(사58: 6-7)이 어떤 것인지 전하듯이 실제로는 그들이 경제와 구원이 형식적인 제물(예배)과 무관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 것이라 짐작된다. 실상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되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의 회복이었을 것인데 오랜 세월의 경제적 고통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율법의 구문 그 자체에 집착하도록 만들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⁶⁾ 예수님은 이에 대해 바리새인들이 십일조를 비롯 지키긴 하나 율법에는 정의와 자비, 그리고 믿음과 같은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으며(마 23:23),

5) 그러므로 보다 직접적인 경제적 상황은 역사적 기록에 의존해야 한다.

6) 아마도 그들은 모세가 전해준 율법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에 집중하지 않았을까 짐작한다. 우리는 전체적인 구도 속에서 최적의 선택을 하기 보다는 현상 인식에서 가장 먼저 주의를 끄는 것에 묶여 사고가 확장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focal point 라고 부른다. cf. Schelling (1980).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의 율법의 중요성은 알고 있었어도 안식일의 주인은 알아보지 못했다.

역시 같은 맥락에서 번제물이나 희생제물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막 12:33).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배불리 먹은 백성들이 자신을 강제로 왕으로 만들려는 의도를 피했고(요 6:15⁷),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 사람의 생명이 재산의 소유에 있지 않다(눅 12:15)고 분명히 하셨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경제와 구원에 관한 또 하나의 특징은 영생과의 관계에 있다. 그는 하늘나라를 주인이 종에게 달란트와 트나를 맡긴 것에 비유하시면서 우리에게 청지기로서의 사명이 있음을 알게 하셨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째 주인의 재물을 관리하는 대리자의 역할이다.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富有에 대한 태도가 소유에 관한 개인의 태도와 윤리식에 관한 것이었는데, 이 소유를 일시적으로 관리를 맡은 자의 관점으로 전환하고 있다. 둘째는 관리자는 주인의 뜻에 따라 재물을 사용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그는 회계해야 할 의무가 있다(마 25:14-30). 그러므로 주인의 뜻을 분별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열심히 하는 것보다 주인의 일을 바르게 알아듣는 것이 더 필요하다. 재물 사용의 실행 과정에 대한 책임을 저야 하고 아울러 사후 결과를 현재의 결정 과정에 포함시킬 수 있는 인식의 확대가 따른다. 이런 의미에서 랜디 알콘은 이 결정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영생을 보낼 것에 영향을 주므로 이 땅에서의 청지기 역할을 영원의 관점에서 봐야만 한다고 한다.⁸⁾

지금까지 우리는 네 번의 반복된 성경의 역사적 사건을 통하여 경제적 구원이 어떤 역사적 배경에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 그리고 각 시기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들에 나타난 공통점과 특징들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은 표를 만들 수 있었다.

<표 1> 시기 구분에 따른 경제와 구원의 관계의 공통점과 특징들

공통점	경제적 고난 - 구원의 약속의 선포 - 약속의 성취 - 새로운 언약 - 백성들의 선택	
특징들	출애굽	경제와 구원의 전형, 믿음의 시험, 경제적 가치 손실로서의 희생(제물)
	다윗	악인 vs. 의인, 부에 대한 개인적 태도
	예루살렘 재건	죄의 심판, 이방 왕들에 의한 재정 공급, 회개와 약속
	예수의 공생애	율법의 완성, 경제와 구원의 원형의 재확립, 청지기

우리는 위와 같은 공통점과 특징들이 성경의 경제와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을 나타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은 단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큰 줄거리만을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들은 물론 성경에 나타난 경제와 구원의 관계를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적인 측면들을 찾아 살펴보도록 하자.

III. 보완적 요소들

7)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의 행동이 표적 때문이 아니라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다(요 6:26-27).

8) Alcorn (2003).

1. 고통과 심판, 그리고 언약과 선택

성경에 나타난 경제와 구원의 역사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긴 부분은 경제적 고난의 시간이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고통의 문제는 왜 은혜와 자비가 많으신 구원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고통을 주시는가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경제와 구원의 관계를 균형 있게 설명하는 필수 요소다. 첫 번째 대답은 고통은 죄의 대가이다. 즉 죄가 있으므로 그 값을 치르는 것이다. 그것은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고통이 죄로부터 기인하는 것은 아니다. 죄를 짓는다는 것은 어떤 한 순간에 불의하고 악한 행위를 선택하는 것이며, 인간은 자신이 선택한 행위의 대가를 얻게 된다. 이것은 정당하다. 그러나 모든 고통에는 그에 상응한 죄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면서 소경된 자에 대해 제자들이 그 원인이 자신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부모의 죄가 원인인지 물었을 때 예수님은“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시면서(요 9:3) 어느 쪽도 아님을 분명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때로 고통을 사람에게 허락하시는 그 뒤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만약 모든 고통을 죄의 원인으로 귀속시킨다면 그것은 율법적 행위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에서 소개된 네 번의 시기에 있어서 고통은 분명히 죄의 결과이다.⁹⁾ 성경은 이 사실을 매우 뚜렷하게 기록하고 있다. 하나님은 만약 하늘이 단혀 비가 오지 않거나 매뚜기로 땅이 망쳐지게 되면 악한 행실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대하 7:14)고 하시고, 이사야 전체에 걸쳐 땅의 황폐함과 약탈, 비가 내리지 않고 생산물이 없어 굶주리는 것이 동일한 이사야서 전체에 걸쳐 열거된 죄들의 결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다. 예레미야서에는 유다백성들이 죄를 지었으므로 재산과 보물을 원수들에게 줄 것이며, 땅을 빼앗기고 황무지에서 살 것이며, 또한 *여호와께서* 그 땅을 저주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다(렘 17장, 23장). 에스겔은 너의 음란한 죄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겔 23:30)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고, 하박국은 *나 여호와가* 불을 보내어 이러한(불의한) 백성이 세운 것(성)을 태울 것이다(합 2:13)라고 전한다. 죄의 대가 지불로서의 이러한 모습은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의 내용과 일치한다.

두 번째 대답은 고통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다시 주신다. 죄의 대가 지불이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고통을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시려는 신호로 삼고 계신다. 따라서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그 메시지를 기억나게 만드는 (reminder)의 역할을 한다. 아버지의 마음은 자녀들이 벌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학개를 통해“내가 너희의 일을 온갖 병과 곰팡이와 우박으로 망쳐놓았는데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학 2:17)”라고 말씀하신다. 다시 말하면 온갖 병과 곰팡이와 우박은 내게로(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징표라는 것이다. 돌아온다는 것은 회개하고 다시는 과거의 죄악에 빠지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은 또 다른 구원의 약속을 하실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또 기회를 주신다.

하나님을 찾는 백성에 대한 구원은 출애굽기의 중심 주제이며 율기에서도 관찰된다. 시편의 전체에 걸쳐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시리라는 약속이 반복되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변함없는 사랑이 표현되고 있다.¹⁰⁾ 그것은 또한 매우 구체적인 약속으로 표현된다. 선지서는 황폐한 땅이 목초지가 될 것이며(렘 33:12), 기름진 땅이 되어 더 이상 기근으로 죽는 사람이 없을 것이고(겔 34:24-29), 갱아주실 것이며(욥 2:25), 심지어 십일조로 나를 시험하라(말 3:10)고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그 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점은 하나님의 언약은 필연적으로 우리의 선택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와 거역할 때의 결과를 알려준 다음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는 것(신 11:26, 신 28장)을 매우 분명하게 말했다. 여호수아도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 것에 대해 선택하도록 했고(수 24장), 다윗과 시편 기자

9) 심지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오랜 시간 후에야 가나안으로 오게 될 텐데 그 이유는 가나안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덜 찼기 때문이라고도 하신다(창 15:16).

10) 시편의 81, 82, 85, 104, 105, 106, 107, 112, 145, 146, 147 편들이 위 주제를 담고 있다.

들 역시 악인과 의인의 길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선택은 공적인 선포 혹은 맹세로 이어진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 앞에서 선택하고 선언했으며(수 24:22), 에스라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그것을 돌이키겠다는 선택과 선언(스 10:5)을 했고, 느헤미야와 함께 백성들이 선택과 맹세(느 10:29)했다. 신약에서는 비록 집단적이지는 않은 개별적 상황이지만 재산의 절반을 기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남은 것을 속여 얻은 것이 있으면 네 배로 갚겠다는 삭개오의 선택과 선언(눅 19:8)이 있다. 그리고 회개하라는 세례 요한의 외침에 대한 사람들의 응답 중에서 요한이 세리들에 대해 요구받은 징수액 이상으로 세금을 거두지 말 것과 군인들에 대해 받는 임금으로 만족하고 사람들에게서 강제로 돈을 뜯지 말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그들에게 회개의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선택의 문제로 제기되었다(눅 3:8-14).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그 기간이 길게 지속되지는 못했다. 앞의 <그림 1>이 보이듯이 얼마 동안의 시간이 지나면 곧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또 다시 죄를 짓는 전철을 밟았다.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기억하게 만드는 많은 장치들, 예를 들어 기념비(수 24:27)나 절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곧 있었다. 사사들을 통하여 이방의 침략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으나 그들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고(삿 8:35) 열왕기와 역대 기록에서 보이는 여러 왕들의 모습은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너무 자주 망각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경제의 회복과 영적 회복의 관계

경제와 구원과의 관계에 대한 지금까지의 고찰에서 경제의 회복과 영적 회복은 늘 동반하는 관계에 있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경제에서 말하는 선행과 후행의 의미로 이해되거나 혹은 경제 회복이 영적 회복에 결과적으로 따라오는 조건과 결과의 사건인가? 우리는 이것을 “분리되지 않으나 다른 의미를 가진다.”라고 말하고자 한다.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역사는 신앙과 경제가 전혀 분리되지 않는 일체로 보인다. 그러나 영적 회복의 의미와 경제적 회복의 의미는 전혀 다르다. 따라서 이 둘은 상호보완적으로 다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경제와 영성(예배)의 회복이 분리되지 않는 이유는 지금까지 본 바와 같이 경제적 고통으로부터의 구원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영성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내 자녀들이 나에게 돌아오기를 기다린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없는 경제만의 회복이나 혹은 그 반대로 경제는 회복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었다는 것을 찾아 볼 수 없다. 그러므로 두 현상은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보인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가 부재할 때에는 예배의 형식이 정확하게 지켜진다 하더라도 경제적으로는 지배자의 착취와 사회적 지도계층의 불의한 행위들은 불식되지 않는 모습이 선지서에 자주 드러난다. 이러한 경향은 복음서에 가장 강한 경향으로 보이는 율법주의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생각된다.

이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법의 조문과 법의 정신이 분리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법을 만드신 하나님의 원래 뜻과 백성들이 법을 지키는 방식과 내용은 서로 물과 기름처럼 갈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외형으로 보면 지키지 않는 것이 없는데 마음은 이미 떠났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호세이는 “그들은 진심으로 나를 부르지도 않으면서 침대에 누워 울기만 하고 곡식과 새 포도주를 달라고 빌 때에도 마음이 떠나 있다(호 7:14)”고 전한다. 이사야는 진정한 금식은 부당하게 가둔 사람과 억압받는 사람들을 풀어주고 그들의 고된 일을 쉽게 해주며, 굶주린 사람에게 음식을,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주는 것(사 58:6-7)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예수님도 비슷한 맥락에서 비록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썩 물러나라(마 7:23)”고 말할 것이라고 하신다. 이것은 신앙에서 종교적인 기능만 남고 (경제적인) 삶은 전혀 일치하지 않는 분리이며 이 율배반성인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의 본질적 관계가 단지 조문으로서의 법으로 타락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그들이 그런 외형만을 갖추고 신명기에 있는 하나님의 복을 바랐다면 그것은 시대착오일 것이다. 이러한 사회가 주는 또 다른 형태의 위협이 있다면 사회적 지도자층이 불의하고 악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는 부유하고 영향력을 주는 모순적 사회 현상이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신앙으로부터의 심각한 소외를 일으킬 수 있다. 경제와 영성(예배)의 관계에서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으며 성경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놀랍게도 그 대답은 이미 다윗과 시편 기자들에 의해 주어져 있다. 아삽은 악한 사람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편안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을 보고 믿음을 잃어버릴 정도였다. 그는 그들의 부요함에 대해 질투를 느끼고 그것을 이해해보려고 애를 썼지만 너무 힘든 일이었다. 그러나 성소에서 그는 곧 깨닫게 되었는데 악인은 멸망할 것이라는 것과 진정한 복은 하나님과의 가까운 관계라는 것이다(시 73편). 또한 시편 50편에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나의 구원을 보일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정한 예배 혹은 영적 회복의 본질을 표현한다. 어느 한 고라 자손도 아삽의 고민과 유사한 문제의식에 대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어리석은 부자들의 부가 결국 다른 사람들의 차지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시 49편). 다윗은 “비록 적은 재물이지만 의인으로 사는 것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악인으로 사는 것보다 낫다고 한다(시 37:16). 이것은 경제와 영성 사이에 외형상 모순처럼 보이는 현상이 궁극적으로는 정의롭게 다루어짐을 말한다.

위와 같이 경제 회복과 영적 회복의 동반적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해도 분명 이들은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경제와 구원이 영적인 의미만 가지거나 혹은 개인의 삶의 양식에서 복에 대한 태도로 국한되지 않는다. 경제적 회복은 역사상 큰 부의 형성 혹은 이동이 있었고 그것이 경제를 새롭게 일으키는 데 필요한 역할을 했으리라 생각한다. 가나안에 들어가 살게 된 백성들은 비옥한 토지와 집과 많은 생산물을 가지게 되었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정치적 안정과 왕성한 경제 활동의 결과로 대규모의 국가적인 부가 형성되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운영하는 관리 시스템도 있었다(왕상 5장, 10장). 예루살렘의 재건에는 고레스, 다리오 및 아닥사스다 세 왕의 관리 하에 있던 금과 은 그리고 목재와 같은 대규모의 자원이 이스라엘로 이동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우선되거나 상징이 절대 아닌, 매우 구체적인 경제적 성취이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구원이 임할 때 대규모 경제적 회복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위해 진정한 관계가 없는 율법적 행위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이다. 율법주의자들에게 이 사실을 일깨워주신 분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말씀과 하나님과 재물이라는 두 주인을 같이 섬길 수 없다고 하신다. 즉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소유에 대해 상반된 두 마음을 품을 때의 복는 진정한 의미의 복이 아니라는 것이다.

3. 창세기의 경제와 구원과의 관계

본 논문이 다루는 경제와 구원은 유독 창세기만은 다루지 않았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복에 관한 일반적 문헌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많은 부를 소유한 사람들이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는데, 이들이 부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고난과는 무관하므로 우리가 다루지 않는 것이 전혀 아니다. 오히려 창세기는 경제와 구원의 관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왜냐하면 인간의 타락의 이전 상태를 기록하기 때문이다. 타락 이전의 경제는 구원과의 관계에서 회복의 궁극적인 원형을 보여준다. 본 논문의 관점에서 창세기의 핵심 의미는 여기에 있다. 다시 말하자면 모세의 출애굽 사건은 경제적 고통이 전제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과정의 전형을 보여준다.¹¹⁾ 그러나 경제적 고통이 존재하기 이전에 가지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과는 거리가 멀다.

11) 우리는 여기서 전형(prototype)과 원형(ideal type)을 의도적으로 구분해서 쓰고 있다. 전형은 표준적이고 대표적인 모형으로서, 그리고 원형은 궁극적이고 이상적인 모형의 의미로 쓰고 있다.

창세기가 직접적으로 경제에 대해 서술하고 있는 구절의 수는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의 원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기술하고 있다. 이 정체성은 당연히 경제적 측면을 담고 있다. 첫째, 인간의 원래의 정체성은 경작자이다(창 2:5). 하나님은 아담의 타락 이전에 사람으로 하여금 경작하게 하실 것을 계획하고 계셨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땅을 가는 것은 인간의 본질로서의 정체성의 한 부분이다. 일을 하고 열매를 맺고 그 결과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자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인간은 다스리는 자이다(창 1:26, 28).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는 영적인 세계가 있는 반면 물질적인 세계가 존재하는데 인간의 또 다른 정체성은 이 물질의 세계를 다스리는 일이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유지되는 한 물질의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의미한다.

이것은 신약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창지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재확인되었다. 창세기의 경작자를 복음서의 창지기와 동일한 맥락에서 볼 수 있다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지 추론해 볼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어진 자원을 잘 관리하여 많은 열매를 맺고 그 일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 될 것이다. 이것은 단지 경제 상황을 개선하자는 차원이 아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창지기는 아담의 타락 이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원래의 형상(창 1:26-28)을 되찾는 역할이 주어졌다고 생각한다.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려 오셨다는 표현의 의미해지려면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창세기가 보여주는 세 번째 메시지는 자원의 충분함이다. 인간이 먹고 생존하기 위해 애쓰는 것은 인간의 본래적 존재의 의미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 즉 식물을 주셨을 때 우리의 마음대로 먹을 것을 말씀하셨다. 이것은 배불리 먹어도 모자라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데 곧 성경적인 풍요의 의미이다. 달리 말하면 자원이 풍부하다는 것인데 그것은 인간이 끝없는 욕망을 채울 생산에 투입할 요소로서의 자원의 풍요함이 아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신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데에 부족함 없이 채우는 분이심을 믿을 때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분임을 드러내신다(여호와 이레, 창 22:14). 넷째, 경제에 관련된 이 모든 것을 완성하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베푸시고 우리로 하여금 순종을 선택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에덴의 가운데에 두시고 기대하신 일이다. 하나님은 약속을 변개하지 않고 신실하게 지키신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이다. 지금까지 열거한 요소들이 창세기에 담겨있는 경제의 모습이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경제와 구원의 관계를 좀 더 온전한 모습으로 보이게 해준다.

위와 같은 경제에 관한 인간의 정체성과 창세기의 원형을 인정한다면 이로부터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하며 확장되어야 할 것들이 있다. 먼저 우리는 이 땅의 것들에 대한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목적으로 착취(exploit)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착취는 우리가 다스리는 권위를 바로 이해하지 못할 때 일어난다. 다스림은 철저히 누군가의 또 다른 다스림 아래에, 즉 누군가의 권위 하에 들어가서 그 뜻에 순종할 때에만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모든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에서 나왔음을 인정한다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고 온전하신 뜻을 알지 못한다면 그 다스림은 자의적일 수밖에 없다. 이것이 착취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풍요를 바로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는 지나치게 많이 모으려고 하는 탐욕을 부린다. 이것은 먹는 문제로부터 안전하고자 하는 욕구를 반영한다. 따라서 먹는 문제에 대한 불안과 탐욕은 결국 불신앙을 말하는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광야에서 자신들을 하나님이 채우시는지 시험한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순종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창세기에 보이는 경제와 구원의 관계에 대한 이해와 아울러 앞서 살펴본 큰 두 가지 보완적인 점들을 고려하여 본 논문의 시기구분에 따른 경제와 구원의 관계를 종합하면 경제를 둘러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경제와 구원은 인간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부요함을 누릴 때에 가능하다. 이것을 전제하

지 않는 어떤 성경적 경제 혹은 소유나 부에 관한 논의도 무의미할 것이다.¹²⁾ 둘째,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이다. 이 기초 위에 인간의 본래의 정체성이 회복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청지기의 사명을 지고 있고 그것을 온전하게 이루어야 한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그것을 신실하게 선택해야 한다. 왜냐 하면 다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며 그는 심판의 주이시기 때문이다.

IV. 결론

우리는 본 논문에서 성경에 나타난 경제적 구원이 매우 의미 있는 형태로 반복 지속적인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줌으로써 성경이 말하는 경제와 구원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이것이 연구 방법론적으로 볼 때 매우 의미 있는 작업임을 기술했고, 그로부터 시대적 구분을 시도하고 각 시기에 따른 특징들을 보았다. 이들 시기에는 긴 역사 가운데 반복적으로 지속되는 일정한 패턴, 즉 경제적 고통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구원의 성취와 그에 따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 등이 있었음을 보여주었다. 이 구원에는 또한 하나님이 죄에 대해 심판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며,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인다.

우리가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방법론은 사회과학의 방법론의 관점에서 보면 아날학파나 조절이론이 유사한 방법을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성경적 경제학의 관점에서 보면 경제이론에 전혀 무관하게 성경을 있는 그대로 먼저 인식하여 그 안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경제적 의미를 띠는 주제의 패턴을 찾아 그것을 성경적 경제의 학문적 관심의 대상으로 선정하고 그러한 패턴들을 성경적 경제학의 구성요소로 삼고자 하는 시도였다고 할 수 있다.¹³⁾ 이렇게 모인 요소들은 궁극적으로 새로운 인식을 바탕으로 한 성경적 경제학을 구축할 조각들(building block)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참고문헌

황희영 (2009), “성경적 경제학의 재건축을 위한 인식 체계의 탐색,” 『신앙과 학문』, 14(1), 299-335.
 Alcorn, Randy (2003), *Money, Possessions, and Eternity*, 김신호 역(2006), 『돈, 소유, 그리고 영원』,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Braudel, Fernand (1967), *Civilisation matérielle et capitalisme*, 주경철 역(1995), 『물질문명과 자본주의 I-1, I-2』, 서울: 까치글방.
 Boyer, Robert (1986), *La théorie de la régulation: une analyse critique*, 정신동 역(1991), 『조절이론』, 서울: 학민사.
 Schelling, Thomas (1980), *The Strategy of Conflict*,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2) 그 동안 성경적 경제의 틀 속에서 매우 큰 시각차를 보이는 대표적인 이슈들이 있다. 먼저 제3세계의 빈곤과 같은 문제에 대한 인식 및 태도의 차이인데 이에 대해 윤리적 접근을 하는 이들과 복음을 우선적으로 주장하는 이들이 분리된다. 그리고 크리스천들 사이에 어느 정도의 소유가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합당한 소유인가라는 문제의식을 들 수 있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은 풍요의 하나님이므로 소유에 제한을 둘 필요가 없다는 주장과 많은 부는 다만 죄에 빠질 가능성을 높이기만 할 뿐이라는 주장까지 서로 다르다.

13) 황희영(2008) 참조.